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예배로의 초대 Invitation	인도자
신앙고백 Confession	다같이
찬양과 경배 Worship	다같이
기도 Prayer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말씀 Sermon	선교보고 곽형일 목사
결단의 시간 Dedication	다같이
축복기도 Benediction	임종길 목사



3부: 오후 1:30 선교 후 정비를 위해 쉽니다	
예배로의 초대 Invitation	
찬양과 경배 Worship	
말씀 Sermon	
기도 Prayer	
축복기도 Benediction	

- 새예배당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멕시코 단기 선교 (5.27-6.1.2024)
 - 1)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2) 멕시코 선교팀이 18명의 전원이 복귀하였습니다.
- 멕시코 성명구/황은주 선교사님 초청 부흥 집회 및 장로 임직식
 - 1) 일시: 8.30-9.1 (전교인 수양회 기간)
 - 2)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장로 임직식: 9.1 오후 (시간은 추후 공고)
- 멕시코 쓰레기 마을 교육관 마련에 참여 원하시는 분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작성한 금액에 작성하신 후 현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2) 체크나 봉투에 멕시코 바수론, 또는 쓰레기 마을이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임목사 부부 휴스턴 집회 인도 후 복귀
 - 1) 휴스턴 순복음교회 2024 비전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 2) 성도님들께서 기도해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스 담당자들이 고향인 서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 현금은 들어오실 때에 현금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 지난주 헌금 (Last Week's Offerings)

주장헌금	1130	선교 헌금	210
십일조	2645	건축 헌금	110
감사헌금	270		
		총액	4,365

● 썰 그룹 나눔 주제 Questions for Cell Group Sharing

* 일주일 동안 선교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Services and Meetings)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화-금 새벽기도 (온라인)	오전 5:30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토요새벽기도	오전 6: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YM, EM	오전 11:00
수요 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토요 여성 성경공부	오전 9:00	새가족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00

● 후원선교사 (Supporting Missionaries)

Missionary	Country	Missionary	Country
고동훈/김흥희	Israel	김성화/진옥경	Dominica Republic
구스타보/안희진	Cuba	장순희	Nepal
정은희	South Sudan	성화영	Sri Lanka
김광호	NK Church	강태호	Japan
나운주	Washington DC	이흥구	California

● 멕시코 현지인 목회자 가정 - 호압, 미셀, 레아, 호세



● 멕시코 선교 후기

1. Kinder 교육관 및 공동 샤워실 건축

이번 선교의 주제는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듯,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화려한 해변 리조트 뒤로 숨겨진 절망의 땅, 바수론, 우리는 그들을 보며 가슴으로부터 올라오는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흘리는 동정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절실하게 건물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기금을 모아야 하지만, 없는 가운데에서도 절망한 아들을 위해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쓰레기 마을 전체를 어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곳의 킨더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은 생명샘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육관 건물 5만불과 매월 교사비 200불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육관 건물을 위해서 일단 5만불을 일시불로 멕시코로 보내고, 그것을 성도님들의 작정헌금으로 채워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민 사회는 물론, 우리와 연결되는 모든 소망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도외시 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할 것입니다.

2. Spanish Ministry (SM) 사역자

제가 맨 처음 생명샘 교회의 비전을 나누면서 다민족 목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한인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에 머물면 안됩니다.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한인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에는 구심원적 선교와 원심원적 선교가 있습니다. 구심원적 선교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원심원적 선교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적용하자면,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 남미로 나가는 것이 원심원적 선교라면, 미국으로 들어와 우리 주변에 이미 살고 있는 스페니쉬 언어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면 구심원적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 일년에 단 일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스페니쉬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인 교회라고 하는 딱지를 떼어 내야 합니다.

다민족 교회의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은 스페니쉬 미니스트리를 여는 것입니다. 미국 내 히스패닉의 숫자는 수년 전에 이미 흑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버지니아 전체에 히스패닉 인구는 17.4%이고 그 중 62%가 Northern Virginia에 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히스패닉과 라티노의 총 인구는 900,000명을 넘습니다. 거의 백만명에 육박하는 수이지요. 그 중 62%면 60만명 가까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소외계층에 속합니다.

이번 멕시코 선교의 성과 중 하나는 멕시코 현지인 목회자인 호압과 미셀 가정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학기에 신학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에 들어와 있는 히스패닉 선교를 위해 파송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분들을 사역자로 모실 수 있다면, 다민족 목회라고 하는 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



생명샘 교회
Living Spring Church



2024 표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Behold, I will do a new thing; now it shall spring forth
이사야 (Isaiah 43:19)

EM: Mark Lee 목사 / 장애우사역: 박경숙 전도사
Youth: Isaac & Martin Lin
제자훈련: 허용범 전도사 / 상담: 전에스티 전도사
아동부: 민경은 사모 / 유년부: 배민희 전도사
영아부: 배미자 권사 / 원로: 임종길 목사

담임: 곽형일 목사

7200 Ox Rd, Fairfax Station, VA 22039
T. 571.839.3058
LivingSpringVirginia@gmail.com
www.LivingSpring.net